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론 풀어지고 싶다**

김성국



10여년을 가장으로 살아오다
기진해진 어깨
'누워 자라' 하시면서
이불 덮어주던
어머니의 방에 눕고 싶습니다

목회자로 살아 온지 십 수년
공지 머리 기르고 수염은 길러
지나가는 여우비에
호박 잎 위로
빗물 등구는 마당에 서서
오줌발 날려 보고 싶습니다

주일 아침
주보 받으며 들어서서
지긋하신 권사님의 등 두드림 받고
오늘 설교 무엇인지 확인하고는
설교 시간에 즐다
아내 눈총 받고 싶습니다

폭설에 갇혔던 대관령 고개
아이 소변통에 앉아
차 안에서 일 보던 아내가
내 앞에서 마음놓고 풀어 진 곳
다시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길창덕의 꺼병이, 박수동의 고인들
윤승은의 꼴찌와 한심이
배 깔고 엎드려 읽으면서
낄낄대고 웃고 싶습니다
설교준비와 상관 없이

부침게 만들다가
제일 먼저 만든 것
목사님 갖다 드리라던 어머니 말씀 생각나
신문지 덮은 접시 들고
문 나서는
기복신앙이라고 홍보던 믿음
다시 가져보고 싶습니다

심방날짜 받아놓고
성경찬송 올려 놓을 작은 상 사러
여기저기 다녀보고
우리 가족 위해 간구하는 목사님 기도에
눈물 흘리고 싶습니다

이젠 너무 세련되어
다 잃어 버린 모습
모두 허물고 풀어 해쳐
하나 들씩
다시 모아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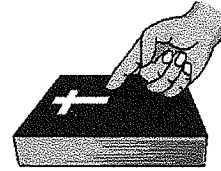


◀추억생각하기▶ **김만철 씨 일가 탈북 귀국**

의사였던 그가 온 가족을 데리고 탈북해서 일본에 머물던 그때, 온 국민의 눈은 그의 행보에 쏠려있었습니다. 막내의 다리를 고치기 위해 탈북했다는 말에 콧잔등이 시큰거렸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 탈북 가족의 물꼬를 튼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후 냉면 체인점을 내었던 어느 탈북자도 생각 하는데 이름이 떠 오르지 않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25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6월 22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80년의 기다림



어느 날 밤, 작고 아담한 교회에 피곤한 나그네 한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하룻밤 쉬어갈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의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가는 교회 있어요?"
"저...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생각은 없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무신론자를 성전 안에서 재워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면서
노인을 내보냈습니다.
노인은 힘든 걸음으로 순순히 교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작고 아담한 교회를 가끔 힐끔 힐끔 뒤돌아보며 멀어져 갔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털고 들어와 책상에 앉아 성경을 펼쳤을 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그를 내쫓았는가?"
"아... 하나님...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8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은 깜짝 놀라 뛰어나가 그 노인을 찾았으나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

엄마가 딸에게
청결도 지나치면
결벽증이 된다
침대 밑에 먼지가 좀 있어도
숙면할 수 있는
느긋함을 가져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컴퓨터 모르는 엄마라고
무식하다 하지 마라
너만했을 때 엄마는
너라도 감히 말 붙이기 힘든
눈부신 멋쟁이였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3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 (시편 13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440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규임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5:1-10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예수님은 누구신가(5) '나는 포도나무라'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83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유병민, 한상숙 집사 가정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6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1	노은숙	박정자	선교부	김경일, 김교섭
8	박일영	박태원	세월의 흐름	김진근, 김반석
15	이광희	박하림	이일원, 김혜경	김종건, 김성국
22	이규임	박혜련	유병민, 한상숙	김종우, 김현수
29	이재영	변민강	최원영, 이종란	민광호, 박병민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1. 교우소식
* <이사> 권용일, 이지영 집사 ☎ 475-5700 ☎ 66B Matipo Rd. Mairangi Bay
* 김진근 집사, 가족이 계신 호주 방문위해 10여일간 예정으로 출국
* 기도부탁, 원성호 집사 부친 수술위해.
* 김성국 목사 Mobile Phone 027-448-2570
없이 다녀도 불편함 모르니 영락없는 구시대!,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
배워 X세대인양 만회하여 보겠습니다
2.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심을 환영합니다
* 민병구, 조미애 집사(선기, 흥기) ☎ 818-8680 ☎ Ambler Ave. Glen Eden
* 권오걸, 허미숙 집사(지수, 혁진) ☎ 832-2137 ☎ 11 Anich Rd. Massey
3.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 출애굽기 강해
* 한 구절 한 구절 짚어 가며 풀어나가는 말씀, 한 구절 만큼씩 보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4. 교회 창립 기념주일 전교인 운동회(예고)
자녀들의 Term Break 기간이기에 출가분한 마음! 아직 녹슬지 않은 50대의 체
력을 보여 주십시오
* <일시> 7월 13일 예배 후 <장소> YMCA 체육관(City)
* 제 2남선교회에서 진행, 담당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살롬, 익투스 & 밀알 성가단 합동공연
* <일시> 27일(금) 저녁 6:30 <장소> Salvation Army Church(City)

◀작한 시인들▶ -노은숙-

설거지 하다 말고
창 밖을 본다
푸른 빛의 청아함에
마음 맑아져
문득 숨쉬고 있음에
잠잠히 함께 하심에
겨자찍은 회 씹듯
콕콕 콧날이 시큰해진다
허기진 가슴에
한 울 온기로
새털 보다 가벼이
다가오시는
따스한 주님의 아침심방

감사함으로 노크했더니 이
미 주님은 따스한 훈기로
은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처음 써보는 부끄러운 글
이지만 교우님들의 많은
글들이 후보에 실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렸습니다